

금호타이어 이석태 광주기술장 선정

광주시는 5월30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김효근(39)씨 등 5명을 기술장으로 선정했다.

수상자는 기계 · 금속분야의 김효근씨 외에 전기 · 전자분야에 캐리어 온인선(45)씨, 화학분야 금호타이어 광 주공장 이석태(42)씨와 럭키산업 손영범(31)씨, 기타분야에서 매일유업 김성진(33)씨 등이다.

5명은 제조현장에서 투철한 장인정신과 적극적인 사고로 공정개선과 품질 향상, 원가절감 등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았다.

광주시는 후보자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지실사 등을 거쳐 수상자를 결정했다.

<화학저널 2007/06/01>